

ICT기반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추진 현황 조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

국제의료전략단 정치중, 백승수, 이행신

Contents

- I. 설문조사 개요
- II. 설문분석 결과
- III. 종합 분석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52곳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추진 현황 조사 실시
- ◆ 응답의료기관 33곳 중 22곳이 외국인환자 대상 원격협진 실시중이며, 1곳이 향후 원격협진 실시를 준비 중
 -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실시 의료기관 22곳 중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20곳(상급종합병원 10곳, 종합병원급 10곳)으로 대부분 차지
 -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주요 대상국가는 카자흐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임
 - 외국인 환자 원격협진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원격협진 관련 국내 규제를 가장 많이 꼽음

I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외국인 환자 원격협진 현황 파악과 활성화 방안 도출
- (조사내용) 외국인 환자대상 원격협진 의향, 원격협진의 어려움 및 요구하는 지원방안 등
- (조사기간) 2022년 7월 28일 ~ 8월 12일
- (조사대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52곳
- (응답률) 63.5%(52곳 중 33곳)

〈 표 1 〉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추진 현황조사 대상 및 응답결과

구분	조사기관	응답
상급종합병원	22	12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16	12
전문병원	8	4
의원	6	5
합 계	52	33

II 설문분석 결과

- (외국인환자 대상 원격협진 실시 여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3 곳 중 22곳이었음(그림 1).
 - 외국인환자 대상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22곳 중 상급종합병원 10곳과 종합병원 10곳으로 90.9%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9.1%는 전문병원 2곳이었음(그림 2).
 - 상급종합병원 중 1개 의료기관에서만 현재는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2022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향후 1년 이내에도 실시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외국인환자 원격협진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 11곳 중 1곳이 향후 계획이 있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10곳은 향후에도 원격협진을 수행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함.



[그림 1]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실시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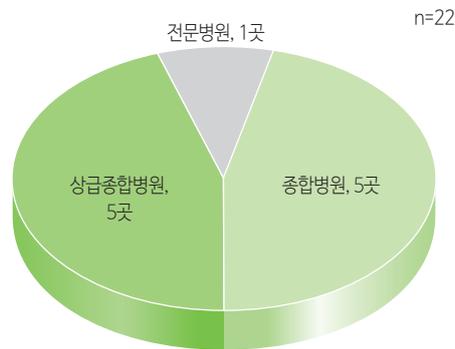
[그림 2] 원격협진 실시 의료기관의 종별 분포

① (원격협진 ICT솔루션 운영 현황) 외국인환자 대상 원격협진 실시 기관의 50%가 Zoom이나 Skype와 같은 일반 화상 미팅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의료정보시스템이 연계 가능한 원격협진 전문 ICT솔루션 구매하거나 자체개발하여 운영함(그림 3~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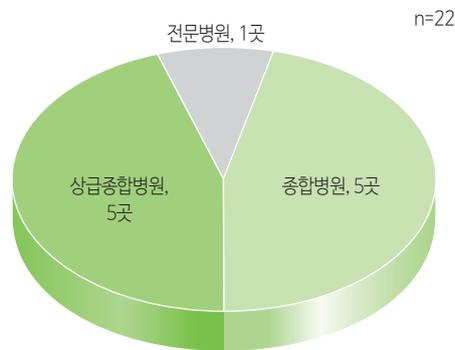
- 원격협진 전문 솔루션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중 상용 솔루션이 아닌 자체 개발하여 사용 중인 의료기관으로는 전체 11개 곳 중 2곳(19%)임
- 사용 중인 상용 솔루션은 비트플러스(비트컴퓨터), 라임(파인헬스케어), 애니케어(유비플러스), 이지온더콜(이지케어텍), 착한의사(비바이노베이션) 등을 사용하고 있고



[그림 3] 원격협진 실시 의료기관의 원격협진 ICT솔루션 운영 현황



[그림 4] 원격협진 실시 의료기관별 일반 화상 미팅 솔루션 사용 현황



[그림 5] 원격협진 실시 의료기관별 원격협진 전문 솔루션 사용 현황

- (외국인 환자 원격협진 주요 대상국가)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22곳의 2022년부터 년 6월 현재까지 총 28개국을 대상국가로 하였음. 이 중 카자흐스탄 17곳, 우즈베키스탄 16곳, 몽골 16곳, 러시아 1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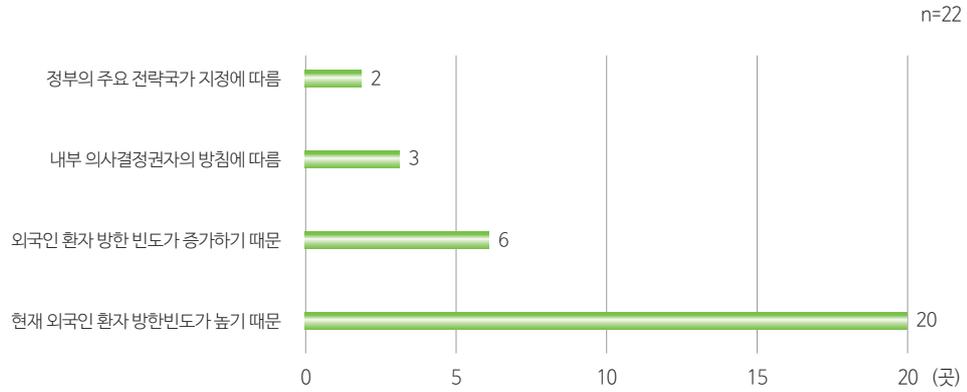
- 전문병원의 경우는 대부분 중동이나 CIS 국가를 대상으로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6] 원격협진 실시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대상국가

- (주요 원격협진 대상국가 선정 기준) “현재 외국인 환자 방한 빈도가 높은 국가”를 주요 선정 기준으로 응답함(그림 7).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모두 현재 외국인 환자 방한 빈도가 높은 국가를 주요 대상 국가 선정기준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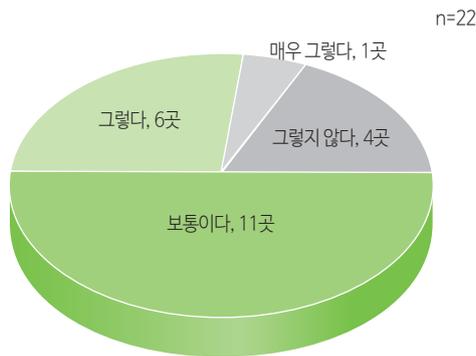


[그림 7] 원격협진 실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주요 국가 선정 기준

- (원격협진 대상국가의 원격협진 활성화 정도) 응답의료기관 22곳 중 18곳(81.8%)이 “보통이다” 이상을 응답함(그림 8).

- 응답별 분포는 활성화 정도가 ‘보통이다 50.0%’, ‘활성화 되어 있다 27.3%’,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4.5%’로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 18.2%’임.

- 응답한 주요 요인 중 긍정적인 측면은 코로나 이후 원격협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해외 의료기관에서도 원격협진을 위한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며,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터넷 속도 및 영상의료정보의 질이 아직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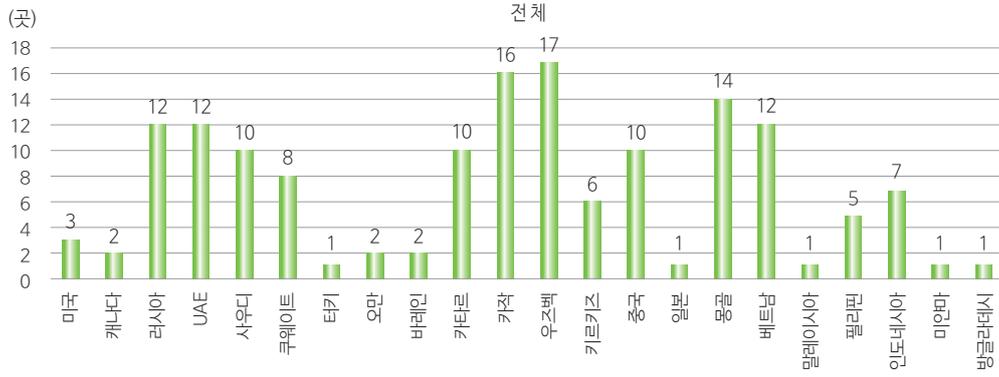


[그림 8] 외국인 환자 원격협진 주요 대상 국가들의 원격협진 활성화 정도

- (향후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국가) 조사대상 의료기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베트남, 러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순으로 원격협진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기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그림 9).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원격협진 실적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응답하였으며, 러시아·CIS국가이외 향후에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n=23



* 향후 외국인환자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 1곳 포함

[그림 9] 향후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사업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자구노력이 필요한 국가

- ①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노력)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준비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현지 네트워크 강화 19곳(44.4%)”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그림 10), 의료기관 종별에서도 다르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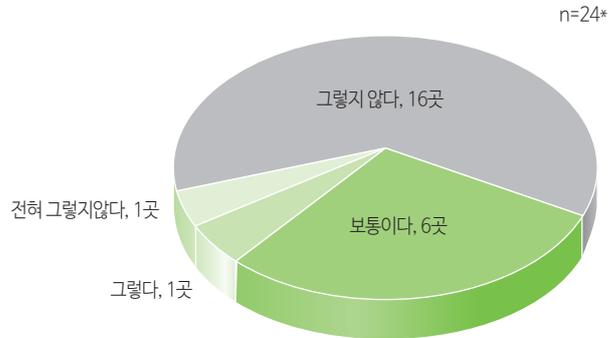
- 기타 응답으로는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 및 내부의료진의 원격협진 적극참여 캠페인” 등이 있었음



*향후 외국인환자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 1곳 포함

[그림 10]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노력

- ②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한 대비 정도에 대한 의견) 현재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17곳(70.8%) 였음(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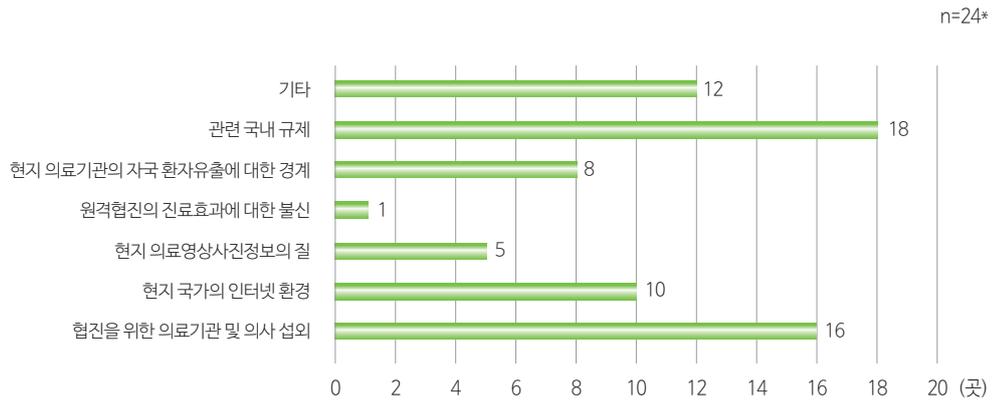


* 외국인환자 원격협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의료기관 중 본 문항에 응답한 의료기관 2곳 포함

[그림 11]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대상 원격협진 활성화 대비 현황

① (외국인 환자 원격협진에 대한 애로사항) “원격진료 관련 국내규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함(그림 12).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환자 원격협진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 내부(의료진)의 합의 및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고, 관련 규제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그 밖에 해외 현지국가의 ICT환경 및 의료영상정보의 해상도가 낮아 외국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함.



* 외국인환자 원격협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의료기관 중 본 문항에 응답한 의료기관 2곳 포함

[그림 12] 응답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애로사항

III 종합 분석

■ 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협진 실시하는 경향

- 현재 외국인 환자 원격협진 사업은 중증질환 중심의 외국인 환자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100 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 의료기관 입장에서 외국인 환자 원격협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케어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해외 협력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대형병원이 원격협진을 실시하기에 용이한 상황임.
 - 다만, 대형병원이면서 외국인 환자의 원격협진 수요도 존재하지만 관련 국내법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장 차이와 내부 여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의료기관도 있었음.
-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안내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기 위한 정부 기준이나 가이드가 부족하여, 외국인환자 원격협진의 위법 여부에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함

■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원격협진 솔루션 유형(범용과 자체 개발) 사용

- 상대국 의료인과 외국인 환자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Biz미팅 솔루션을 선호함
 - 의료기관에서도 사용 편의성이 높은 범용 Biz미팅 솔루션 사용을 선호하지만, 범용 Biz미팅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내부 HIS시스템을 오가며 진료를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상존함.
 - 일부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예약 및 환자정보 관리 플랫폼을 범용 Biz미팅 솔루션에 연동되도록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원격협진 전문 솔루션 사용에 대해서는 특정 솔루션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제품(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음.

■ 주요 원격협진 대상 국가는 CIS 국가와 러시아, 몽골에 집중됨

- 응답 의료기관들의 주요 원격협진 대상 국가는 CIS 국가와 러시아, 몽골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국가들의 수요는 높지 않았음.
 -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원격협진의 특성 상 국가 간 시차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원격협진 대상 국가의 확대와 의료기관 인프라 수요가 높음

- 향후에도 CIS국가와 러시아, 몽골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GCC국가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양한 국가로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마케팅 및 네트워크 강화 활동과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내부 업무환경의 스마트화에 대해 수요가 높았음.



■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춰 외국인 환자 원격협진 활성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인 대상「의료법 제34조원격진료」와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와 같은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용어정의와 함께 원격협진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는 「의료법 제34조(원격진료)」를 준용,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협진(국내 의료진:상대국 의료진)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원격협진 현장에서는 현지 의료진은 별도의 진료나 의료적 판단을 거의 제시하는 경우가 드뭄.
 - 한편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섭외해야 하는 사항을 원격협진 사업추진 데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음.

■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 외국인 환자 원격협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외국인 환자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한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와 지원
 - 「의료법 제34조(원격진료)」와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와 같은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 정의와 범위* 등,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협진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공
 - * ICT를 활용한 의료행위 대상(외국인과 국내인)과 범위 등에 대한 검토와 명확화
 - 아울러 외국인 환자의 원격협진(국내 의료진: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 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검토를 통한 특칙 마련
 - 외국인 환자 원격협진 맞춤형 외국인 환자 개인민감정보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중동 GCC국가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원격협진 대상 국가의 확대 노력
 - 다양한 국가로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마케팅 및 네트워크 강화 활동과 지원 필요
- 외국인환자 원격협진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련 사업 홍보 등 지원방안 마련



- ◎ 집필자 : 국제의료전략단 정치중, 백승수, 이행신
- ◎ 문의 : 043-713-8921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사용 또는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간행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및 보건산업통계포털 (<https://www.khiss.go.kr>)에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